**성탄 대축일 전야(2017년 12월 24일) 강론**

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

성탄 축하드립니다! 드디어 성탄입니다. 지난 몇 주 동안 성탄을 준비하고, 기다려왔습니다. 드디어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기쁘신가요? 행복하신가요? 아니면, 그냥 그저 그러신가요?

인생은 언제나 늘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죠.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기다립니다. 미래에 펼쳐질 꿈과 희망은 누구든지 기다립니다. 아니면, 누군가로부터 들려올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.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와 예감으로 무엇인가를 늘 기다립니다.

부모들은 자녀들에게서 들려올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. 연인들은 서로에게 전해질 사랑의 소식들을 기다립니다. 가족 친지들에게서 들려올 뭔가 좋은 소식이 늘 궁금합니다. 그렇게 우리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.

그렇게 그 옛날 어둠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었습니다. 그렇게 우리들도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이 성탄을 준비했습니다.

성탄은 단순히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한 아기,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. 그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를 온 세상이 이렇게 들떠서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은 아니죠. 세상은 압니다.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은 압니다.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.

한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를 한 번 쳐다보십시오. 갓 태어난 세상의 모든 아기는 포대기에 싸여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통인데, 우리의 이 작은 아기는 차가운 구유에 누워있습니다. 구유는 먹이 통입니다. 먹이통!

이 구유는 누워있는 이 아기의 운명을 미리 예시하고 있습니다. 세상의 구원자, 우리 구세주의 모습입니다. 이 아기는 장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게 됩니다. 세상의 양식, 모든 이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.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구세주 아기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렇게 먹이 통에 누워있습니다. 너무나 작고, 초라하고, 미약하고, 볼품이 없습니다.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는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 왔습니다.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.

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세주 탄생의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. 성탄을 통해서, 죽음은 삶으로 바뀌고, 죄인들은 구원 되었고, 슬픔은 행복이 되었습니다. 좌절은 희망이 되었습니다.

이것이 2000년 전, 그 날 밤, 첫번째 크리스마스였고, 매년 다가오는, 그리고 바로 올해도 어김 없이 찾아온 크리스마스가 갖는 의미입니다.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.

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. 신앙이 아니면 믿기 힘든 이야기죠.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,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.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잊고 살때가 많습니다.

구세주 탄생의 메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. 성탄과 더불어 비로소 우리가 구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.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.

“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!” 이것이 이천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바로 그 날 밤, 첫 성탄절 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성탄의 메세지입니다.

아무 걱정 마시고, 어떤 상황에서든지, 늘 기쁘고 행복하게,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.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입니다.

복잡하고 바쁜 시즌입니다. 즐겁게 지내세요. 캐롤도 신나게 부르고, 불도 다 켜고, 그리고 가족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십시오. 그러면서,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,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메세지를 기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.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!

성탄 축하 드립니다!